

조류인플루엔자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빅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다. 미국 대통령조차 군대까지 거론하며 예방하겠다는 발표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 환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고 발표하는 것이 언론인과 정치인의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호도되는 면이 적지 않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100년 전 스페인에서, 1990년 후반 홍콩에서 발병했을 때, 모두가 닭고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홍콩 사람은 1인당 수십 킬로그램의 닭고기를 소비하고 있다. 인류의 식생활 중에서 닭고기는 결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고기 등 관련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닭이 알을 전혀 낳지 않고 거의 대부분 24시간내 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관련 제품은 안심하고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인명피해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볼 때 그것은 위생적이지 못하며, 30°C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냉장고에 저장하지 않고, 칼과 도마 같은 위생도구의 청결 상태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작년의 경우 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어 “닭고기를 먹고 사망을 하면 최고 20억을 보상해 준다”라고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통계학의 대명사인 보험회사가 계약을 할 만큼 우리네 닭고기는 그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미국과 브라질

최근 콜롬비아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브라질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다. 브라질은 육류 청정국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해 왔으나, 최근 구제역을 비롯한 병명을 알 수 없는 가금류의 호흡기 질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0월달에 약 300톤 정도가 수입되어 시장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 겨울 브라질의 발생여부에 따라서 전 세계 가금육 시장가격은 근본적으로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월 선적분까지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톤당 1,550~1,600불 정도이며, 사이즈가 정해진 장각(Size Regular Whole Legs)의 경우 1,600불 이상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의 무역업체들은 정규적인 주문을 자제하고 있다. 국내의 가격이 워낙 저가로 형성되어 있어 수익은 고사하고 원가보존이 어렵고, 만일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환불받을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도가 되면 미국산 가금육은 거의 소진될 것 같다.



덴마크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국토 면적이 작은 이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주변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러시아, 터키 등에서 발병했으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잘 극복하고 있다.

10월 선적분은 모두 판매가 되었고, 11월 선적분의 가격은 I.Q.F(개별급속냉동) 장각의 경우 1,600~1,650불, 통날개의 경우 2,200~2,300불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

태국과 중국

당분간 원료육 수출은 불가능할 것 같고, 가공품 수출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된 '닭꼬치'는 이미 한국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했으며, 향후에는 수입해서 바로 도매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형태의 상품군들이 거래될 것 같다. 이미 부산과 경남에 위치한 업체들이 수차례 중국과 태국을 방문하며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다. 태국의 최대 가공육 생산업체인 S사의 경우 11월에 대다수의 한국 바이어들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언론에 조류인플루엔자 기사가 발표될 때마다 닭고기 소비량은 급속히 감소한다. 10월 초,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서 전체 닭고기 소비량의 30~40%가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이다. 그 기사들의 실체를 살펴보면, 우리네 먹거리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의 닭고기 식생활은 국물이 있는 탕을 해서 먹고, 기름에 튀겨서 먹고, 초벌구이한 것을 다시 한 번 불에 구워서 바비큐로 먹는다. 안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작년에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고, 얼마 후 닭고기는 다시 사랑받는 필수 육류식품으로 거듭 자리매김했다.

닭고기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소비침체로 인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나부터가 닭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비 활성화의 최선책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C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NIPPON HAM 한국지사 근무
중앙대 국제 창업경영 대학원 석사과정중
•문의 : merittrading@hanafos.com

